

제 안 설 명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종기 의원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엄청난 재해를 입어 그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지난 9월 12일 태풍 『매미』가 우리 거창군에 또 한번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해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피해상황을 알아보고 또 피해를 가중시킨 요인과 지난해 복구공사를 한 곳이 재붕괴된 원인, 공공시설등이 재해피해에 미친 영향, 그리고, 향후 수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해 냈으며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보고와 논의로만 거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해 집행부등에 촉구해야 한다는 뜻이 모아져 『태풍피해 복구 및 재해예방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태풍 『매미』의 강력한 풍속과 집중호우에다 산사태까지 겹친 천재는 피할 수 없었던 재난이었지만 재해예방을 위해 조금만 더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지연으로 인해 태풍 『루사』의 수해복구공사가 한창이던 사업장에서 피해가 재발하였는가 하면, 계속되는 우기와 기상청의 태풍예보가 있었음에도 하천내 전석과 장비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허술한 사업장 관리가 하천 범람 피해를 가중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현장감 없는 설계, 같은 공구내 공사 분리발주, 도 관리 사업장에 대해 군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감독부재 등이 부실시공을 초래하였고, 그런 사업장들은 이번 태풍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방 1·2급 하천의 관리권이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저수량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으나 행정권한이 미치지 아니하고 있는 것도 치수·재난방지 행정의 허점으로 드러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방화, 분권화 추세에 맞지 아니며, 또, 재해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해대책본부장인 최일선 자치단체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에서는 완벽한 태풍피해 복구로 재발을 막고 향후 재해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이를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 내용과 촉구사항 아홉 가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촉구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저수지 관리권 인수, 또는, 용수조절권 행사가 일선자치단체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 목적을 이유로 조성된 저수지입니다다는, 태풍 경보시에는 저수량을 조절하여 피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하천관리권 행사를 일선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예산등 실질적인 권한집행은 경남도가 직접 관장하고 일부 사무 및 소규모공사 등만 시·군이 담당하는 등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재해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이 피해의 주원인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해복구공사 부분들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같은 공구 내에 여러 업체가 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일관성 있는 공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공구 내에는 동일업체가 시공을 하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 책임한계라든가, 효율적인 공사진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금번 태풍 『매미』 피해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미수립과 공사설계의 지연, 시공업체의 발주지연 등으로 재해를 자초하였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촉구하며, 특히, 지구온난화 현상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선시공등의 조기발주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저수지 안전도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웅양저수지 같은 경우는 만수위보다 1.5m 정도 수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제방의 안전도 검사는 재난방지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하천제방 설계 부분을 살펴보면, 일률적인 전석시공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커버가 심한 곳등은 기초 부분을 콘크리트 처리를 한다든가, 좀 더 견실한 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피해지역 내의 교량들을 살펴보면 첫째, 높이도 낮을 뿐만 아니고, 특히, 교각간의 폭이 좁아서 산사태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목재들이 제방역할을 하여서 더 큰 피해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시공을 빨리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거창 문제입니다마는, 웅양저수지 상류의 약수암 진입교량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라도 같은 비가 온다면 또 그 상류지역에 재해를 자초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동산마을에서 나오는 배수로, 거창읍 상수원 취수장 안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배수로가 지난 태풍

피해로 복구하였습시다마는, 이번에도 다시 유실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지 다시 한번 근본적인 재발원인을 조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산림수종 선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낙엽송 위주로 되어 있던 식재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 건의문이 채택되어 행정자치부나 농림부, 또, 경상남도, 우리 거창군에 보내고자 합니다.

의장님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재해대책 개선 촉구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